

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내시경 소견 및 빈혈

(Endoscopic findings and anemia on long distance runners)

원광의대 소화기 내과학교실, 임상병리과학교실, 원광보건대학**

김진아*, 김태현, 김용철, 유경훈, 국향, 최창수, 이영진*, 최석준*, 최석재, 나용호

목적: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평상시, 연습중, 시합중에 복통, 설사, 속쓰림, 구역, 구토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심할 경우 위출혈 및 직장 출혈을 일으킬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장거리 달리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연관된 증상, 내시경 소견, 빈혈의 빈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운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장거리 달리기 선수 24명(남: 16명, 나이: 17.75 ± 0.77 , 여: 8명, 나이: 17.5 ± 0.53)을 대상으로 위장관 증상의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위내시경 검사(Pentax EPM-3300)를 실시하여 전과정은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하였다. 빈혈검사는 대변의 잠혈검사(LA Hemochaser, MIZUHO, Japan), Hgb, Hct, iron, TIBC, ferritin, reticulocyte count 및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증상은 복통 14명(58.3%, 평상시:6명, 연습시:5명, 시합시:3명), 설사 15명(63%, 평상시:12명, 연습시:3명), 속이 더부룩함 14명(62.5%, 평상시:9명, 연습시:5명), 속쓰림 12명(50%, 평상시:8명, 연습시:4명), 구역질 10명(41.7%, 평상시:3명, 연습시:7명), 구토 5명(20.8%, 평상시:2명, 연습시:3명), 역류 8명(33.3%, 평상시:2명, 연습시:6명)이었다. 과거에 빈혈약을 복용한 선수는 8명(33.3%), 현재 빈혈약을 복용중인 선수는 3명(12.5%)이었다. 빈혈이 있는 선수는 남자 16명중 2명(12.5%), 여자 8명중 3명(37.5%)이었다. 빈혈이 있는 5명의 선수들의 혈액도말검사결과, 4명은 초기 철결핍성 빈혈, 1명은 철결핍성 빈혈이었다. 적혈구 형태의 이상은 7명에서 elliptocyte, schistocyte, tear drop cell, target cell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잠혈변은 남자 4명, 여자 1명에서 양성이었다. 위내시경 소견은 미란성 위염 15명(유문동 및 위저부에 현저), 알칼리 역류성 위염 7명, 급성 십이지장염 2명, 위궤양 1명이었다.

결론: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위내시경상 급성 점막성 병변이 관찰되어 이러한 요인들이 빈혈에 관여하리라고 생각된다.

1세 미만의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상부위장관 내시경의 임상적 유용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소아과*

박상흠, 이진우, 김은주, 정일권, 민용식*, 김홍수, 박상흠, 이문호, 김선주

배경 및 목적: 내시경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상부위장관의 병변, 원인질환들은 성인과 소아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왔으나, 신생아 및 1세 전후의 환자의 경우 내시경 검사 자체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또한 검사 이유도 일부 질환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유아가 환자의 내시경상의 특징 및 소아, 성인과의 차이점에 관한 경험은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도 소아위장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아에서의 내시경시술 및 관련문헌들이 점차 늘고 있으나, 영유아에서의 내시경에 관한 문헌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근래에 들어 내시경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기구가 점차 소형화되고 소아용이 개발됨에 따라 대상연령이 낮아지고, 대상적응증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과에 입원했던 환자 및 특히 출산직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여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전처치 및 시술상에서의 문제점 파악, 아울러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의 가치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본원 소아과에 입원했던 환자 및 특히 출산직후의 8명의 영유아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고 후향적으로 환자의 증상, 전처치, 내시경 진단소견 및 치료에 있어서의 가치 파악을 하였고 아울러서 내시경수기나 마취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였던 증상은 토혈이 가장 많았다(50%). 생후 4일 이내의 신생아에서 토혈의 원인으로는 위폐양이 가장 많았다(75%). 그밖에 내시경 검사는 구토의 원인으로서는 십이지장 외인성 폐색을 진단하여 수술 결정에 도움을 주었고, 열쇠를 삼킨 환자에서는 내시경적 제거가 가능하였다. 방초산을 섭취한 환자의 부식성 식도염과 위염의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담도 폐색증 수술후 환자에서 식도 및 위 정맥류 진단에 유용하였다. 전처치는 일반적인 경구 제제나 본 교실의 Ketamine, Midazolam 병합주사에서도 문제점 없이 시술될 수 있었고 내시경 시술 자체에 따르는 합병증 또한 없었다. 결론: 1세 미만의 영유아 환자에서도 내시경 검사는 적절한 전처치 및 숙련된 내시경술을 통해 여러 소화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하였다. 추후 소아 내시경 보급 및 치료 내시경적 접근이 다양해진다면 영유아 환자에서도 내시경 검사는 매우 중요한 진단 및 치료수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